

전주시,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유치원·초·중·고등학교 8만5000여 학생들 건강한 성장 돕기 위해 무상급식·친환경농산물·바이전주상품 부식비 지원 등 144억원 투입

전주시가 새 학기를 맞아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안전한 먹거리로 만든 학교급식을 제공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올해 전주시역 22개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8만5000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9억원(6.7%) 증가한 총 14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는 초등학생은 2800원에서 3000원으로, 중·고교생은 3500원에서 3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바이전주상품 부식비 단가도 인상돼

급식이 더욱 알차게 제공된다.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506억 원은 전주시(137억 원)와 전라북도(123억 원), 전라북도교육청(245억 원)이 분담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자해 사립유치원 친환경 쌀 구입 차액 지원사업과 바이전주상품부식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유치원생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친환경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16개 사립유치원에 친환경쌀 구입에 따른 차액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바이전주상품 부식비 지원 사업으로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201개교에 6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가 및 바이전주 우수상품 등 지역기업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지역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성장기 아이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우리 지역 농가들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시 누리집·코로나19 홈페이지서 발급 가능 발급민원 해소·전담 공무원 업무 부담 완화 기대

코로나19에 확진된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전주시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생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격리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도내 최초로 시민들의 보건소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발급대상은 올해 2월 7일 이후 확진자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통지서와 재택치료 격리통지서, 확진자 및 접촉자에 의한 자가격리 및 재택공동 격리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방법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격리통지서 발급을 선택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의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 만큼 격리통지서 발급민원 해소 및 전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경남 전주시 스마트시티과장은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지원금 신청 시에도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 정보 확인 및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 업무 공백 없이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으로 한 신속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영농철 일손 부족 농가에 농기계 지원

총 2억2600만원 투입 중소형 농기계 구입 등 농가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올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총 2억2600만 원을 투입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 등 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달 말까지 총 29개 농가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기계 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

작하고 있는 전주시역 농업인 중 500만 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를 구매하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수요조사 후 선정이 완료됐다.

이와 함께 시는 불철 영농부산물 토지환원을 위해 맥류 등 작물을 재배하는 트랙터 보유 농가에 임판쟁기 등 8대를 지원해 지력증진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경운기나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29개 농가에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

착을 지원해 농업기계의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39개 농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2농가에 관수관비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덜어주고 노후 농기계 교체에 통해 농작업 효율성과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운영

시민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해 홍보 캠페인 등 진행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시민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과 청정 자원순환도시 구현을 위해 '1회용품 없는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10일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회용품 없는 날'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1회용품 없는 날은 '1회용품'의 '1'과 '제로(Zero)'의 '0'에서 착안해 매월 10일로 결정됐다.

시는 이날 1회용품 없는 날 시행 첫날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대를 활용해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홍보 현수막, 피켓들을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1회용품 없는 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 뿐만 아니라 △주요 지점 현수막 게시 △버스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이미지 송출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로 인해 4월 1일부터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변경되는 규제 내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1회용품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는 2인 1조 3개 반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전북대 대학로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찾아



전주시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시행 첫날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대를 활용해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홍보 현수막, 피켓들을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가 중점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는 6월부터는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에 따라 100개 이상의 커피·음료 가맹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음료 판매 시 1회용 컵에 보증금(300원 예정)을 부과하고, 이를 되가져오는 경우 반환해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빨대·짚는 막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투,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사용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업종이 확대된다.

시는 달라지는 1회용품 관련 규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향후 일정에

맞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1회용품 줄이기 위해 △각종 회의 및 행사 진행 시 1회용품 사용 금지 △전 직원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 △재활용품 우선 구매 등 생활 속 실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식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전통 한옥 보전·신축 공사비 지원

내달 8일까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전주시가 전통의 멋이 살아 숨 쉬는 한옥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민에게 공사비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전통 한옥의 계승 및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바닥면적 60㎡ 이상 실제 거주 목적 한옥(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건축 면적에 따라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한옥 착공 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한옥 건축 후 5년 동안 철거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한 한옥 신축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신고 후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하며, 한옥 증축·개축·재축이나 리모델링 지원 대상은 등록한옥으로 제한된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지원 희망자

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지원신청서와 한옥건축 계획서, 설계도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층)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한옥 건축지원 시범사업은 한옥의 보전 및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 건축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